

중소대출 줄이기 전방위 공세

한국은행이 최근 총액대출현도를 축소한 데 이어 금융감독국이 중소기업 대출 리스크 관리 강도를 높이는 등 중소기업 대출을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공세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은 최근 중소기업 대출 증가 속도가 비정상적인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증가세를 꺾기 위한 다양한 규제안을 내놓고 있다.

4월까지 25조원 늘어…“증가세 과도”

한은 대출한도 축소·금감위 관리 강화

◇수그러들지 않는 중소기업대출= 26일 금융감독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4월까지 금융권의 중소기업대출은 25조2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한 해 동안 58조8천억원이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4개월만에 1년 증가액의 43% 수준까지 급증했다는 의미다.

은행권의 월별 중소기업대출 증가액은 4월 7조원, 5월 7조1천억원을 기록하는 등 역대 최고치 수준에 머물고 있다. 올해 3월말 기준 은행권 중소기업대출의 업종

별 동향을 보면 건설업과 부동산업 등이 포함된 비제조업의 비중이 62.8%로 제조업의 37.2%보다 높다.

올 들어 1분기까지 제조업과 비제조업 증가율을 보면 비제조업이 5.1%로 제조업의 4.9%보다 높다. 업종별로도 건설업과 부동산업이 7.9%와 7.4%로 여타 업종에 비해 높은 편이다. 중소기업 대출 증가액이 제조업보다 비제조업으로 흘러 들어가는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다.

◇금융당국 “증가속도 과도하다”= 금융당국은 중소기업대출의 증가속도에 대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금감위는 중소기업대출의 증가가 중소기업의 자금수요 증가 요인이지만 은행의 외형 경쟁, 주택담보대출 감소에 따른 반사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기업대출 증가는 기본적으로 긍정적이지만 은행들의 외형경쟁에 따라 급격히 대출이 늘어나고 있고 이 자원이 생산·투자 등 기업활동과 연결되지 않는 부작용도 있다고 판단한다.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도 최근 “주택담보대출 위축으로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고 있다”면서 “급격한 중소기업대출 증가로 추후 부실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은행 역시 급격히 불어나는 중소기업대출에 대해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금융당국, 중소기업대출에 전방위 공세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점차 중소기업대출을 꺾기 위한 강도를 높이고 있다.

윤증현 금융감독위원장이 지난달 직접 나서 시중은행장들에게 경고를 전달한 데 이어 금융감독당국은 한국은행과 함께 중소기업 대출과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융감독당국은 또한 중소기업 대출 때 부동산담보 대출가액을 시가에서 수년간 평균값으로 반영하고 용도와유용 의무점검 기준금액도 현행 건당 5억원보다 낮은 수준으로 조정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대출 동향에 대한 모니터링을 현행 10일 단위에서 1일로 단축할 계획이다. 앞서 한은은 3분기 총액대출현도를 2분기보다 1조5천억원 줄여 6조5천억원으로 설정하기로 의결했다.

금융가는 한은과 금융감독당국의 최근 조치가 모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을 제어할 목적으로 일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연합뉴스

론스타 “한국서 세금 한푼도 낼 이유 없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한국에서 막대한 투자차익을 벌어들였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론스타는 26일 외환은행과 국동건설, 스타리스 등 한국 내 투자는 별기에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별기에의 조세조약에 근거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세금을 내지 않는다는 이유로 한국에서 비난을 받아왔지만 이는 사모펀드 투자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일반적인 방식이라면

서 한국의 사모펀드도 글로벌 투자를 하게 될 때는 그 방식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투자위험을 제한하고 투자자들의 목표수익을 맞춰주기 위해 비용을 줄이고자 하는 노력은 모든 기업에서 일하는 재무담당자들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이 펀드는 강조했다.

다만 외환은행 매각차의 중 1천억원을 사회환원하는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면서 스타리스와 국동건설의 경우도 일부 차익을 사회에 환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금감원 “론스타 외환銀 매각 상당기간 어렵다”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나오기 전에 외환은행의 경영권을 매각하려는 뜻을 이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금융감독위원회 권혁세 감독정책1국장은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론스타가 외환은행 잔여 자산 51.02%를 전락투자자에게 매각하려면 감독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향후 매각이 이뤄질 경우 새 대주주의 적격성을 철저히 심

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 국장은 “법원에 관련 사안이 계류돼 있어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리하겠다”면서 “따라서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발언은 “법원 판결 전이라도 적당할 인수자가 나타나면 외환은행을 매각할 수 있다”는 론스타의 계획에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연합뉴스

조선·철강·전기 맑음 건설·시멘트 흐림

자동차·반도체 작년과 비슷한 수준 유지

전경련 3분기 산업 전망

올해 3·4분기에는 조선, 철강, 전기, 일반기계 등은 경기가 호전되는 반면 건설, 시멘트 등은 악화될 것으로 예상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주요 업종단체를 대상으로 ‘2007년 2·4분기 산업동향 및 3·4분기 전망’을 조사한 결과 올해 3·4분기에 지난해 동기대비 종합경기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은 조선, 철강, 전기, 일반기계, 타이어 등이며, 건설, 시멘트 등은 악화될 것으로 전망됐다고 26일 밝혔다.

조선은 4년치 정도의 일감을 확보하고 있고 각종 신공법의 개발로 생산성

향상 속도가 더욱 빨라지고 있어, 생산은 작년 동기대비 30.1%, 수출은 42.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철강은 조선, 자동차 등 수요산업의 경기호조, 포스코의 파이넥스 가동, 현대철의 열연설비 증설로 생산은 작년 동기대비 2.9% 증가하고 도금강재를 비롯한 고급재의 해외수요 증가로 수출은 작년 동기대비 5.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일반기계는 조선, 자동차 등 주력산업의 경기 호조와 일본, 유럽연합(EU),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의 수요 증가로 내수 판매는 13.2%, 수출은 13.4% 증가할 전망이다.

전기는 발전기, 변압기, 차단기 등 주

요 전기제품의 수요 증가와 동남아 수출 확대에 힘입어 생산은 18.4%, 수출은 15.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건설은 올해 공공사업비 예산의 조기집행에 따른 하반기 물량 부족과 추석연휴로 인한 공사중단 등의 영향으로 8.0% 감소하고 시멘트의 경우 생산은 10.0%, 내수는 11.7% 감소할 전망이다. 전경련은 자동차, 전력, 석유, 섬유, 공작기계, 전자, 반도체, 석유화학, 유통 등의 종합경기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경련은 “현재 주요 제조업의 가장 큰 기업경영 애로요인은 환율하락과 원자재수급난”이라며 “채산성 개선을 위해 안정적인 환율정책과 환리스크 지원 방안이 마련되고 수출시장 다변화, 해외 자원의 개발 및 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미국발 악재 亞증시 급락

코스피 8.18P 코스닥 16.49P 떨어져

아시아 증시가 미국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부실 우려 때문에 대체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중국 증시는 장 막판에 반등했다.

26일 한국의 코스피지수는 8.18포인트(0.47%) 내린 1,749.55로 거래를 마쳤으며 코스닥지수는 16.49포인트(2.07%) 급락한 780.31로 마감했다.

코스피지수는 지난 2월이후 처음으로 3일 연속 하락했다. 거래대금은 전날보다 6천억원 가량 감소한 5조1천972억원에 그쳐 위축된 투자 심리를 반영했다.

장 초반 상승 출발한 코스피지수는 오후들어 한때 20일 이동평균선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장 막판 대기 매수세와 꾸준한 프로그램 매수로 낙폭을 줄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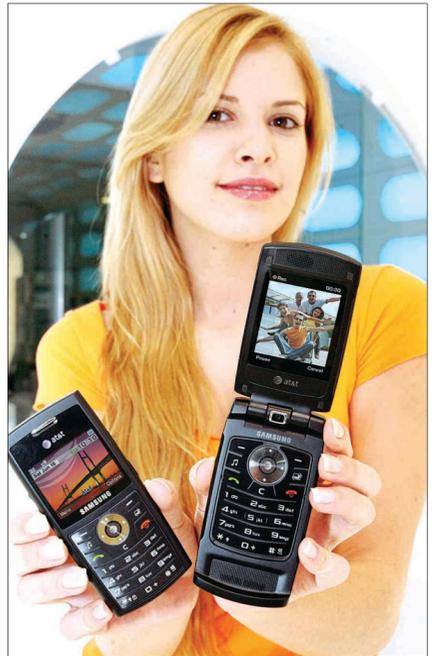
이날 국내 증시의 하락은 해외증시가 동반조정을 보인 가운데 내부적으로는 심리와 수급이 악화됐기 때문이다. 뉴욕증시가 서브프라임 모기지 우려

로 하락세를 이어간데다,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증시 전반이 조정양상을 보이자 코스피도 이에 동조하는 모습이였다. 내부적으로는 단기급등 후 조정양상이 지속되면서 주요 투자주체들의 심리도 불안해져 장중 많이 팔은 매물에도 지수는 크게 흔들리는 양상이었다.

한편 대만의 가권지수는 73.44포인트(0.82%) 하락한 8,865.75에 마감했으며 일본의 닛케이 평균주가는 전날보다 21.37포인트(0.12%) 하락한 18,066.11에 장을 마쳤다.

오전 내내 하락세를 보이던 중국 증시는 장 막판에 반등에 성공했다.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32.29포인트(0.82%) 상승한 3,973.37, 상하이A지수는 32.40포인트(0.78%) 오른 4,169.01로 마감했다. 상하이B지수는 14.81포인트(5.69%) 급등한 275.25로 마쳤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삼성전자 출시 HSDPA폰 삼성전자가 미국 3G시장 공략을 강화하기 위해 26일 출시한 폴더와 바형 HSDPA폰 2종을 들고 모델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식 신용잔고 사상 첫 7조 돌파

주식시장의 신용융자잔고가 증권업계의 자율규제 움직임에도 눈덩이처럼 불어나 사상 최초로 7조원을 돌파했다.

26일 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전날 기준 신용융자잔고는 7조100억원을 기록했다.

연초 4천998억원에 불과하던 신용융자잔고는 주식 외상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미수 동결계좌가 시행된 5월2일 2조8천202억원으로 늘어난 데 이어 두 달이 채 안되는 기간 동안 4조원 이상 추가로 늘었다.

미수거래 규제가 강화되고 증권사들이 신용융자 이자를 잇따라 낮춤에 따라 대출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들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유가증권시장의 업종별 신용융자잔고를 보면 증권(853억원), 전기·전자(617억원), 기계(321억원), 운수장비

(308억원), 화학(284억원), 철강·금속(268억원), 유통업(268억원), 건설업(191억원), 의약품(160억원), 서비스업(137억원) 순이다.

코스닥시장은 IT부품(620억원), 금속(406억원), 통신장비(404억원), 반도체(381억원), 금융(378억원), 컴퓨터서비스(363억원), 유통(278억원), 기계(267억원), 건설(261억원) 순이다.

한편 증권사들은 금융감독당국이 주식 신용융자 제도를 규제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자정 노력의 일환으로 자체적으로 신용융자 서비스를 손을 대기 시작했다.

대우증권이 이달 21일부터 일부 신용융자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으며 키움증권은 22일부터 신규 신용융자를 전면 중단했다. /연합뉴스



중형차 경품 받은 10세 어린이 서울 코엑스를 개관 7주년을 맞아 열린 경품모형행사에 대상으로 뽑힌 10살 최지훈 어린이가 25일 코엑스몰의 경품전달식에 참석해 상품인 기아 중형차 앞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농업인 경영회생자금 받기 쉬워진다

농림부 지원 자격 완화

농림부는 ‘농림정책 리모델링 위원회’ 논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보다 많은 농업인이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영회생지원 제도를 개선한다고 26일 밝혔다.

지난 2004년 본격 도입된 경영회생제도는 자연재해·가축질병·가격 급락 등으로 일시적 경영 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에게 필요한 자금을 연이율 3%, 3년 거

치 7년 분할 상환 방식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농림부는 우선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최근 1년 정도 연체가 있어도 그 이전 5년이상 대출금 연체 사실이 없다면 ‘일시적 경영위기’로 간주, 경영회생자금을 주로로 지원대상 자격을 완화했다.

농업인의 편의를 위해 거래하고 있는 인근 조합이나 시·군지부에서 대출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한다. /연합뉴스

함께 일합시다

| 업체명 | 모집분야 | 자격및경력 | 연봉(만원) | 마감일 | 연락처 |
|----------|----------------------------|----------|-----------|-------|--------------|
| 케이에프지* | 한국고직원공제회 재정설계전문위원 매니저 특별채용 | 대출/경력2년 | 회사내규 | 06/28 | 02-743-0020 |
| 이레상사* | 재고관리/거래처관리/배송/영업관리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6/28 | 062-511-6061 |
| 에스티* | 전자제품 상하차 정류직 모집 | 고졸/경력무관 | 1800~2000 | 06/28 | 062-514-6464 |
| 드림라인* | 경리 및 간단회계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6/29 | 062-368-2001 |
| 엘리즈* | 비보시링CM 및 MD/키터고리매니저/상품기획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6/30 | 062-717-5018 |
| 신원화* | 생산직 사원 채용 | 고졸/경력무관 | 1200~1400 | 06/30 | 062-944-8485 |
| 서울항공여행사* | 해외 여행, 여행사 업무/경리 분야 모집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6/30 | 062-225-3636 |
| 진원상사* | A/S 및 기술영업직 | 고졸/경력무관 | 1400~1600 | 06/30 | 062-374-5850 |
| 일이십 한의원* | 피부 비만 코디네이터 및 피부관리사 구인 한의원 | 고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6/30 | 062-351-1230 |
| 나경인터내셔널* | 호텔무동프크 총무 모집 | 초대졸/경력무관 | 회사내규 | 06/30 | 062-231-1563 |
| 동양생명*·본사 | [TM1위-6월]고객상담원 200명 남·여 모집 | 고졸/경력무관 | 3400~3600 | 07/03 | 02-518-2769 |
| 인포드림넷* | 하니로텔레콤 고객센터 인바운드 상담원(남·녀) | 고졸/경력무관 | 2600~2800 | 07/04 | 062-236-0217 |
| 에이RN* | SKT서부지사 114인바운드 상담원 모집 | 고졸/경력무관 | 1800~2000 | 07/04 | 062-529-2671 |
| 인티세이브* | [경력실적있는 웹디자인] 모집 | 초대졸/경력1년 | 회사내규 | 07/04 | 062-225-0054 |

〈광주잡코리아 512-6210 제공〉

مشي گوگو 한국 수출 선적 중단 해제

농림부와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은 지난달 말과 이달 중순에 걸쳐 세 차례 이뤄진 미국 내수용 쇠고기 수입과 관련, 해당 작업장에 내렸던 한국 수출선적 잠정 중단 조치를 26일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금수 조치가 풀린 작업장은 미국 육류업체 카길사 소속 2곳, 타이슨사 소속 4곳 등 모두 6곳이다. 검역원은 “상대국(미국) 수출검역증명서 내용과 내수용 쇠고기의 수입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카길사와 타이슨사의 6개 작업장은 이번 내수용 쇠고기 수출건과는 무관한 것으로 판단했다”며 해제 결정의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검역 당국은 지난달 25일과 26일 부산항을 통해 들어온 카길사의 쇠고기 15.2t 등이 미국 내수용 쇠고기기로 확인됨에 따라 각각 지난 4일과 19일자로 6곳의 관련 작업장에 대해 한국 수출 선적을 금지하고 미국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연합뉴스